

# 여수시,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선도 도시 조성 박차

### 섬·웰니스 관광·랜선 여행·스마트 관광·해의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전략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관광도시 여수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글로벌 해양관광휴양 선도 도시로서 도약을 꿈꾸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7월 향후 2030년까지 여수 미래관광을 견인할 관광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 관광정책 추진으로 분주하다.

포스트코로나시대 비대면 트렌드를 접목해 구상한 글로벌 해양관광휴양 선도 도시 여수의 밑그림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감도

■ 일레븐 브릿지 섬 테마별 관광지원화

시는 천혜의 비경을 가진 아름다운 섬을 발굴하고 치유, 휴식, 힐링 테마 콘텐츠를 가미한 섬 관광자원을 개발해, 코로나19로 높아진 비대면 관광 수요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의 웰니스 관광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전략이다.

화양에서 고흥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인 여수섬섬길과 연계해 섬 개발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 2월 경 용역이 완료되면 섬 고유 테마별로 관광지원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화태~백야 구간 연결로 여수시 돌산읍부터 고흥군 영남면까지 11개의 다리(일레븐 브릿지)가 모두 연결되면, 흡사 교량박물관을 연상케 하는 다양한 교량과 보석같은 섬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해양관광벨트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2024년까지 1조 5000억 원 규모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싱가포르 센토사섬을 롤 모델로 삼아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여수를 세계적인 해양관광휴양지 반열에 올려 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 힐링여수야(SNS) 랜선 여행·스마트 관광

온라인으로 8개 채널 12만 팔로워와 소통하는 '여수관광 힐링여수야(SNS)'는 365개 아름다운 섬과 바다 풍경, 일출과 일몰이 환상적인 관광지를 발굴해 소개하는 등 코로나19시대 여수여행을 간접 체험하고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랜선 여행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여수여행 시 지켜야 할 생활 방역수칙 홍보도 병행함으로써 안전한 여행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는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관광 수요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스마트관광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 스토리텔링 마케팅...여수의 아름다움 세계에 알리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크루즈입항이 취소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는 장기적인 눈으로 동남아 등 타깃 국가별 특성에 맞는 SNS 온라인 홍보와 여행잡지 지면광고 등 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여순사건의 아픔을 소재로 한 '동백' 웹드라마를 자체 제작 발표해 국내·외 웹페스트에서 수상하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드라마

배경인 여수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해외에 알렸다.

■ 역사의 중심 '전라좌수영의 본영, 여수' 관광콘텐츠 창출

임진·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끈 전라좌수영 본영이었던 여수는 임진왜란 당시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 설치되어 조선수군의 본거지로서 구국의 성지이자 성웅 이순신 장군의 기백과 충정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역사의 고장이다. 시는 이러한 여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여기에 인물 자원을 스토리텔링하여 관광 콘텐츠를 지속 확장해 나갈 전략을 세웠다.

임진왜란의 일등공신인 거북선이 건조된 지금의 여수 선소 유적(사적 제392호)에 2024년 까지 선소 테마정원과 테마영상전시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해전을 자원화한 조·명연합수군 테마 관광자원 개발 사업도 한창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기존 진남관(국보 제304호)과 함께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전라좌수영 동헌일원 복원사업, 돌산진모지구 한산·노량 영화세트장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유구한 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무궁무진한 관광콘텐츠를 창출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 고흥군, 서울 노원구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성료

### 관내 28개 업체 및 농가 참여...2억 4천여만원 매출



고흥군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에서 열린 '청정 고흥 농·수특산물 직

래 장터'가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매결연 이후 네 번째로 열

린 이번 직거래 장터는 고흥군 28개 관내 업체 및 농가가 참여해 유자, 수산물, 햄살 등 100여개의 농·수산물 품목을 판매해 참가업체 중 70퍼센트 업체가 완판을 기록하며 약 2억 4천만원의 매출을 올려 양측이 함께한 직거래 장터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돕기 위해 추진 한 이번 직거래 장터엔 추운 날씨 속에서도 품질 좋은 고흥 농수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노원구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을 찾아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원구와 협력하여 직거래 장터를 비롯한 다양한 농수특산물 홍보 시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 기자

# 순천시, '제3회 순천청년주간' 온택트 축제로 성료

### 6일간 모든 프로그램 온라인 진행...실시간 소통 호응

순천시, 순천대학교,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순천시 청년정책협의체가 주관하는 '제3회 순천청년주간'이 지난 24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열린 제3회 순천청년주간은 순천시청년정책협의체가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순천 청년들을 위한 축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참여자들

의 인터뷰 '말해봐', 청춘참고·청춘웃장 창업가와 도시재생 전문가 등 순천 청년만의 특색있는 직업탐구 '그려봐', 코로나·취업 등으로 힘든 청년들의 마음치유 심리 프로그램 '울지마', 순천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정책대담 및 청년정책 소개 '도와줄게', 지역 청년들의 문화공연 '같이놀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무엇보다 일방적인 프로그램 송출

이 아닌 실시간으로 청년들과 채팅, 댓글로 소통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제3회 순천청년주간'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되어 코로나와 취업난 등으로 몸도 마음도 지친 청년 3,000여 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많은 위로와 희망을 주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온라인 축제모델이 되었다는 평가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 보성군, 전남도립대와 MOU체결

### 지역 맞춤형 강좌 개설로 군민들의 평생교육 장 열어



보성군은 지난 23일 전남도립대학교와 MOU를 체결해 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수준 높은 군민 평생교육의 장을 열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남 남부권 3개 지자체(보성, 장흥, 강진)가 함께 참석했다. 보성군과 전남 도립대는 앞으로 △평생 직업 교육 거점센터 구축 및 운영, △지역 맞춤형 과정 추진,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및 과정 이수 후 성과 공유와 확산 등 인적 교류를 목적으로 상호 협력하게 된다.

특히, 보성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민들의 평생 교육 기회 확대, 재사회화를 통한 취업률 상승, 교육을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

최병만 보성 부군수는 "이번 협약은 단순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생 직업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취업 연계까지 이어져 보성군 평생교육의 장을 열게 되는 좋은 기회"라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역민들이 배움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그를 위해서 보성군 또한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전남도립대학교 MOU 체결과 동시에 순천제일대학교와는 서면으로 평생직업교육과정 MOU를 체결해 보성군민이라면 총 4개(대학별 2개 과정)의 지역 맞춤형 평생 직업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성=김명순 기자

#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